

# 法の 맛은 한가지 해탈의 맛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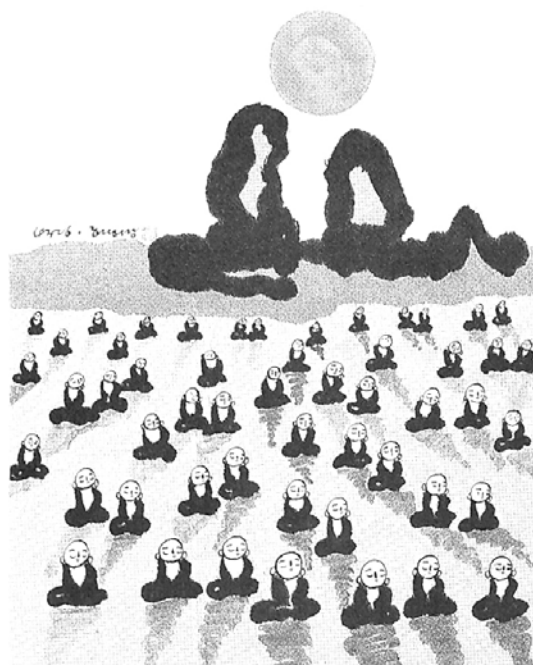
### 불교란 무엇인가 ②

불타의 전설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사람은 프랑스 학자였습니 다. 그들의 논지는 이렇습니 다. 불타의 전기는 일정한 기간을 살 다 간 한 인간에 관한 기록이므로 그 내용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삼을 것이 없습니 다. 반면 불타에 관한 전 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 여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 에 그 내용이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 다. 불타의 전설은 많은 나라에서 수천년동안 수많은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과 시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 다. 따라서 불교는 하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신화, 우주관, 정교한 철학체계(그 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이기도 해서 그가 담아서 소화해내지 못한 인간사의 고요한 정도입니다. 불전(佛傳)에서 접하는 불타의 생애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그가 정각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성불(成佛)을 이루고 난 불타는 법을 설(說)하기로 마음먹습니 다. 정각을 이 루고 고해(苦海)를 건넌 불타는 다른 중생들도 건네 주기를 원한 것입니 다. 그는 베니레스의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합니다. 이어 계속 법을 설하는데, 초기 설법 중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고 하는 것의 비유가 있습니 다. 즉 육체의 정신과 사물이 모두 불타고 있다 는 것입니 다. 같은 시기 서양에선 그리스 예제소 출신의 철학자 헤라클리토스가 '모든 것은 불타다' 라고 말했습니 다. 불타가 가르친 법은 고행의 길이 아니었습니 다. 불타는 고행이 잘못된 방법 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인간은 저속하고 비천하며 고통스러운 육체적 삶에 빠져 서도 안되지만, 그 못지않게 천박하며 괴로운 고행의 삶에 매여도 안됩니다. 불타는 그 양 극단을 여윈 중도(中道) 를 가르쳤습니 다. 그는 이후 사십년 이상을 살면서 대중을 일깨우는데 힘썼습 니 다.

그는 많은 제자를 두었고, 임종의 때 가 오자 죽음을 받아들였습니 다. 스승을 둘러싼 제자들은 모두 상심하였습니 다. '스승이 안계시면 우리 어찌하나' 하고 탄식하였습니 다. 불타는 말하기를, 자신 도 제자들처럼 인간으로서의 무상(無常)하고 비실재(非實在)의 존재이며, 그러나 대신 그들에게 법(法)을 남기노라 고 하였습니 다. 여기서 우리는 불타와 예수의 큰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죽기 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두 사람이 모인다면 자신이 그 모임의

세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 다. 반면 불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남겼습니 다. 즉, 그는 첫번째 설 법에서부터 가르침의 바퀴(法輪)를 굴 려던 것입니 다. 부처님의 사후 불교는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형태 로 발전하게 됩니다. 라마불교, 탄트라 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등 오늘날 불교의 모습은 매우 다채롭습니 다. 제 생각으로는 불타가 처음 설법한 불교의 핵심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극동지방에서 가르 치는 선불교(禪佛敎)라고 봅니 다. 그 외에는 신화적이거나 주술적인 요소가 많이 혼합되어 있습니 다. 우화적인 요소들



◇보르헤스는 부처님이 처음 설법한 불교의 핵심을 가장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극동지방에서 가르치는 선불교라고 강조했다. 시진은 허허당스님의 선화(禪畵) '동참이 밝았으니 노고지리 우지시지'.

“성불이뤄 苦海를 건넌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中道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야 합니다 화살은 마음에 박혀있는 自我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한 불교핵심에 극동지방 禪불교가 가장 가깝습니다”

강조하는 불교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 다. 부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기적을 싫어하였습니 다. 그에겐 기적이 속된 허세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여기 백단(白檀) 나무그릇(鉢盂)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 다.

인도의 어느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 하나가 박한 향이 나는 백단나무로 귀한 발우를 만들었습니 다. 그는 미끄러운 대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 그 그릇을 올려놓고, 누구든 기어올라가는 사람에게 주겠노라 하였습니 다. 외문(外門)의 수도승들이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헛되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 다. 그때 불타의 어린제자 중 한명이 공중제비를 돌아 대나무 꼭대기를 여섯번이나 돌면서 발우를 집어 땅에 내려왔습니 다. 상인은 그에게 발우를 상으로 주었습니 다. 그 소식을 들은 불타는 그를 교단에서 추방

하였습니 다. 괜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 다. 하지만 불타도 예절을 지키기 위해 기적을 행했다고 불전은 전합니다. 어느 날 불타는 한낮에 사막을 가로질러 가 야 했습니 다. 그것을 보고 삼십 삼천(天)의 신들은 각자 그림자를 하나씩 땅 위에 드리웠습니 다. 불타는 그 어느 누구도 섭섭하게 만들지 않기 위하여 자 신의 몸을 삼십 삼천으로 나누어 모든 그림자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합니 다.

불타가 가르친 비유 중에는 아주 교훈적인 것이 많은데, 그중 화살의 비유가 유명합니 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 화살을 빼려고 하지 않고, 먼저 누가 쏘았는지,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에서 쏘았는지, 화살의 길 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보려고 했

습니 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옆사람 과 논쟁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 다. 불타가 말하기를, '반면에 나는 화살 뽑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 다. 화살은 무엇입니까? 화살은 우리 모두가 마음 에 박힌 채 다니는 자아(自我)입니 다. 불타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문제에 헛되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칩 니 다. 예를 들어,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불타는 열반 뒤에도 계속 살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습 니 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박힌 화살 을 뽑는 것입니 다. 이것에 대한 자각이 해탈을 위한 중요한 관문입니 다.

불타는 말합니다. '대양(大洋)의 그 많은 물이 모두 한가지 소금맛을 가지 고 있는 것처럼, 법의 맛은 모두 한가지 해탈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르치 는 법문은 바다처럼 넓고 다양하나 오 직 한가지 목적-경성성불(覺性成佛)하 여 해탈에 이르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 집니 다. 물론 세월이 흐르며 따라 많은 학습들이 나와 복잡한 형이상학적 논쟁 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불교의 요지 는 이것입니 다. 이질만 벗어나지 않다면 불교신자는 그 어떤 다른 종교도 공 부할 수 있습니 다. 중요한 것은 해탈법 문과 사성제(四聖諦) 즉, 고(苦)와 고의 원인(集)과 고의 치유(滅)와 치유에 이 르는 길(道)입니 다. 그 길의 끝에는 니 르바나(涅槃)가 있습니 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성제의 순서는 고대의 의료전 통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 다. 그 전통이 란 발병, 진단, 처방 그리고 치유의 단 계를 말합니 다. 여기서 치유란 열반을 가리킵니 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 나의 수행일기

강장원 <한국화가>



진도의 내 고향마을에는 절이 있었다. 쌍계사였는데 어린시절 그 절에 가면 나는 벽화에 무척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어떻게 저런 그림이 벽에 그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경이감 때문이었다. 그 놀라운 감동에서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한곳이 있 다. 쌍계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윤림산방이 있었다. 남종문인화를 꽃피운 소치 허 유선생이 살던 곳이다.

그러니까 나는 쌍계사와 윤림산방이라는 어릴적의 환경에서 동양화가의 꿈을 키워 온 것이다. 매우 자연스럽게 말이다. 학창 시절부터 그림을 그렸지만 불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은 30대에 들면서부터다. 화론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동양화의 뿌 리는 불교미술을 벗어나서 찾아 볼 수 없 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어린시절 쌍계사 벽화 가 새롭게 떠올랐지만 이미 쌍계사에는 어 린시절에 본 벽화는 없어진 상태였다. 지난봄 나는 개인전을 가졌었다. 달마도

그 전시회의 도록을 만들며 나는 달마도 의 세계에 대해 글을 썼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도 나는 달마를 찾아 다녀야 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나는 달마가 얼마나 큰 인물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적인 불교미술의 길을 찾으려 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다.

사찰을 찾아가면 나는 벽화를 유심히 본 다. 국내에서나 중국 등의 나라를 가면 사찰의 벽화를 유심히 보는데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찰 벽화는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고는 모두가 조각하 기 짝이 없다. 벽화전문인이 없는 실정이 벽화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내가

## 달마도 그리며 되새긴 '불자의 길'

3년동안 108점 완성... "다시 달마찾아 떠나자"

와 심우도를 내 놓았었는데 나는 달마도를 준비하 며 불자로서의 길을 많이 생각 했다. 달마도는 오래전부터 그려 왔지만 전시회에 내놓는 것은 3년 전부터 기획했 다. 108점을 그 려 전시회에 내 놓자는 생각이었 는데 쉽지 않았 다. 그리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 라 그리는 과



한국화를 그리면 서 선화와 사찰 벽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불자 이기 때문만은 아니 다. 후세에 길이 남을 우리 시대의 걸작이 사찰 벽마다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나도 그런 일에 열을 회향해 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큰 탓이 다.

정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웠 다. 달마도를 그리 는 날에는 밤11시에 잠 을 잤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 세 수를 하고 참선을 했다. 마음의 도를 이룬 달마를 그리는데 나는 그 마음의 도를 이루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달마가 되지 않으면 내 손에서는 달 마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달마를 화 두로 참선을 했던 것이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모를 함에 의해 달 마도가 그려졌고 때로는 며칠을 그리지 못 하기도 했다. 달마는 쉽게 나를 만나주지 않았기에 쉽게 그의 걸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3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는 108점의 달마도를 얻을 수 있었다. 전시회 에 다 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들 은 내가 달마를 찾아 떠났던 여려날들의 여행에서 얻은 귀한 보물이었다.

달마를 만나기 어렵고 심우도를 그리며 나의 소를 찾기가 어렵다. 정말 나도 불자 인가라는 회의적인 상념에 빠질 때도 있 다. 그래도 그 회의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 는 것은 달마와 심우도 속의 소가 있기 때 문이다. 가까이 갈 수록 달마는 멀어져 가 도 나는 간 것만큼의 달마를 만나는 생 각을 하면서 나의 불심을 가능하는 일도 부질 없음을 깨달았다. '초발심사변정각' 이란 말이 있듯 처음 내가 달마를 만나고 자 했던 용기를 생각하고 어릴적 쌍계사와 윤림산방의 풍치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달마를 만나러 떠난다.

새벽 참선을 하고 승소리조차 들리지 않 는 고요속에 앉으면 달마는 그 부리부리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뇌성벽력을 지르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아느냐'고 말이다. 그 래도 나는 달마를 찾아 나선다.

## 포시즌 콘도에서 불자님 가정에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카드한장으로 국내외 16개의 최상의 콘도가 생깁니다.

정기 점검을 받으세요

지리산도교 2차분양부

부산 FOUR SEASON

삼익 CONDO

삼익 현대타워

속초 CONDO

신세계 콘도

양정 CONDO

양정 ANGEL HOUSE

호주 시드니 CAPITAL HOTEL

중주 CONDO

부곡 CONDO

양지 스키리조트

가죽과 함께 자연과 함께

포시즌 콘도미니엄

※ 제주 2개 사용

- 포시즌 호 텔
- 서귀포 리조트

■ 창립 10주년 특별혜택

- 단 30분만 모십니다(10월 31일 한함)
- 무이자·무보증 계약 즉시 카드 발급 및 사용
- 성수기 제외 사용일수외 추가 권리보장
- 무공해 주말 농장 이용
- 일시불시 10% 할인
- 신용카드 가능(18개월 할부가능)

■ 정상분양가 (30일 기준)

17평형	1,100만원	23평형	1,500만원
------	---------	------	---------

■ 특별분양가(15일 기준- 도교 2차)

평형	특별분양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17	645만원	165만원	400,000×12개월
25	945만원	205만원	617,000×12개월

· 상기 금액은 회원제 기준임

■ 온라인 구좌안내 예금주: (주)가원레저

농협	366-17-001354	국민	839-25-0009-357
제일	436-20-074674	외환	211-22-01205-8

· 조기마감 될 수 있으나 확인후 입금바랍니다

회원사업부 : (02) 3452-8998(代)

직 통 : (02) 562-3225

법명 도인

(株)加元佳宅  
(株)加元레저産業  
(주)와이·케이 물산